

2018-CR-01-08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8-08

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방안

조병섭



**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방안**

연구책임

조병섭 엘도건축사사무소 대표

연구진

김동연 수연건축사사무소 대표
손종태 리젠건축사사무소 대표
오현근 (주)삼인디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
홍선희 플랫폼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시민 눈높이에서 유휴공간 재설계 지속가능성 고려한 활용방안 수립

공공편의시설 부족한 서울, 지하철역사 유휴공간 활용 필요

서울의 거주인구는 2018년 9월 기준 979만 3천 명이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 생활인구는 여기에 165만 명이 추가된다. 총 1,144만 명이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주택공급을 비롯한 시민의 공공이용시설 확충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도심유휴용지는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하면 찾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에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재발견이 필요한 공공공간이나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여 새로운 용도를 검토해야 하는 소규모 유휴공간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도 시민 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는 시도를 진행하였다. 시민누리공간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된 시민참여형 도심활력 프로젝트로, 이용이 저조한 서울 도심의 공공공간을 시민 스스로 발굴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여 공간을 재해석하고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2017년도에는 무교광장, 길음 지하보도 등에 상설공간을 운영하면서 풀뿌리 예술가 무대, 직장인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활동, 스타트업 마케팅, 환경캠페인 등을 지원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장소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사례이다. 여기에서 다룬 지하철역사의 사례는 다양한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공공공간이지만, 관리운영상의 절차나 비용 등의 문제로 활용하기 힘든 상태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생각하는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정책과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가능성 있는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시민 눈높이 충족하지 못하는 공간활용으로 이용자 외면 초래

지하철역사 내 상가는 주변 상권의 변화에 따른 지하상가 이용률 감소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상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역사 통로 옆으로 길게 만들어졌던 상가들은 관리가 안 되어 흉물이 되거나, 여기서 제안하는 남부터미널역사처럼 가설벽체로 막아서 완전히 폐쇄한 사례도 있다. 시민이 원하는 필요공간은 변화하기 마련인데,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간은 쓸모없는 잉여공간이 된다.



[그림 1] 지하철역사 내 비어있는 상가들

또한, 시민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특색 없는 공간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가 된다. 지하철역사 내에는 넓은 곳은 무대로 만들어 놓은 반면, 휴게공간은 통로 옆 빈 공간에 의자만 놓아두는 등 의도한 목적대로 활용되기에는 미흡한 장소가 많다.



[그림 2] 지하철역사 내 활용되지 않는 편의시설

디자인에서 지속가능성·활용도까지 고려한 활용계획 요구

서울시에서 진행한 지하철역 테마역사 조성계획은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은 물론 지역 활성화와 홍보까지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현재까지 18개의 역사에서 진행되었거나 계획 중이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곳도 있지만, 편의시설을 너무 디자인에만 치중해 설치했거나, 유용하지 않은 시설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림 3] 지하철 테마역사 사례

지하철 유휴공간 활용정책 중의 하나인 테마형 역사는 지역성을 고려한 테마 전시공간,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과 특색 있는 지하철역사를 이용해 장소성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며,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적지 않다. 한편에선, 이러한 정책에 앞서 현실적인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문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활용도 높은 공간 구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하철역사의 이미지 개선 등이 역사 전체 공간의 종합적 활용 계획과 어우러져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부터미널역사, 이용도 높지만 유휴공간·노후시설 많은 문제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공시설이 인접해 있어 다른 역사에 견줘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하지만 국제전자센터와 진로도매센터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용하던 통로와 상가는 비워진 지 오래고, 유지관리가 힘들어 시민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변했다. 이는 남부터미널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과 환경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도심 내 공공공간 활용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4]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주변 현황



[그림 5]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

남부터미널역사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이미지와 유희공간 활용방안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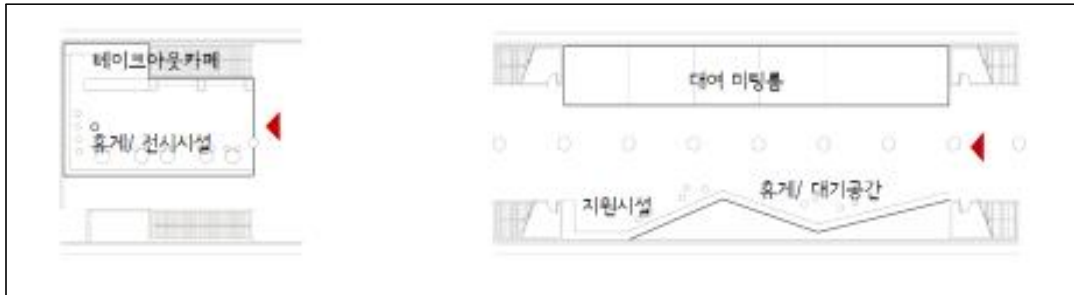
[표 1] 남부터미널역사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기타
만족도	매우 좋다(0)	좋다(9)	보통이 다(27)	싫다 (10)	매우 싫다(3)				무응답(1)
이용빈도 (하루)	0번 (9)	1번 (26)	2번 (27)	3번 (1)	4번 이상(0)				2주에 한 번(2) 1주에 두 번(1)
이용목적	출퇴근 (35)	통학 (1)	남부터 미널 이용(4)	특정 모임(4)	기타 (5)				
불편한 점	사람이 많다 (9)	휴게공 간이 없다(7)	무섭다 (2)	동선이 길다 (11)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하다(7) 편의시설 없다(1), 지저분하다(1), 특색이 없다(1)
유희공간 인식도	진로도 매센터 통로공 간(15)	지하 1층 휴게공 간(22)							모름(12)
유희공간 활용방안 (필요한 공간)	휴게 공간 (21)	미팅 장소 (11)	카페 (16)	도서관 (4)	정보 검색 공간(6)	전시 공간 (9)	편의점 (16)	음식점 (9)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4)
인상 깊은 지하철역사	서울역(4), 경복궁역(4), 합정역(2), 광화문역(3), 고속터미널역(5), 시청역(2),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하 모두 1), 신목동역, 청담역, 용산역, 교대역, 강남역, 녹사평역, 수서역, 종각역, 오사카역								
인상 깊은 역사의 좋은 공간	쾌적한 시설, 편의시설 구비, 전시공간/휴식공간, 휴게공간, 음식점(먹거리공간), 다양한 볼거리, 편리한 동선(에스컬레이터 등), 역사(경복궁)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디자인, 서점(종각역), 예쁜 역사 디자인, 개찰구역에서의 안내공간(오사카역)								
남부터미널 역사 이미지	좁고 사람이 많다, 시외버스터미널 연계, 편의시설이 없다, 출퇴근 동선, 낙후/답답/더럽다, 어둡다, 복잡하다, 계단이 너무 많다(계단 오르기 힘들다), 유동인구가 많다, 오래되어 낡았다, 냄새가 난다, 음침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남부터미널역사 내 폐쇄된 상가시설 등 유희공간의 구체적 활용계획은 아직 없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설문조사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이용자들은 휴게공간·카페·전시공간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유희공간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휴게·전시공간, 대여 미팅룸 등 설치해 이용자 편의성 개선



[그림 6] 남부터미널역 지하 1~2층 유희공간 계획안

지하 1층에 있는 기존 휴게공간을 휴게와 전시를 겸한 갤러리 카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테이크아웃 카페와 전시공간을 넣어 시민에게 다양한 편의서비스와 더불어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 2층 통로 공공공간의 폐쇄된 상가는 소규모 대여 미팅룸으로 꾸며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곳엔 간단한 음료를 지원하는 텀블러 공간과 휴게 대기공간, 디지털 갤러리 등의 편의 공간을 더하여 버려진 유희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되살린다.



[그림 7] 지하 1층 휴게홀 개선 전/후 이미지(갤러리와 휴게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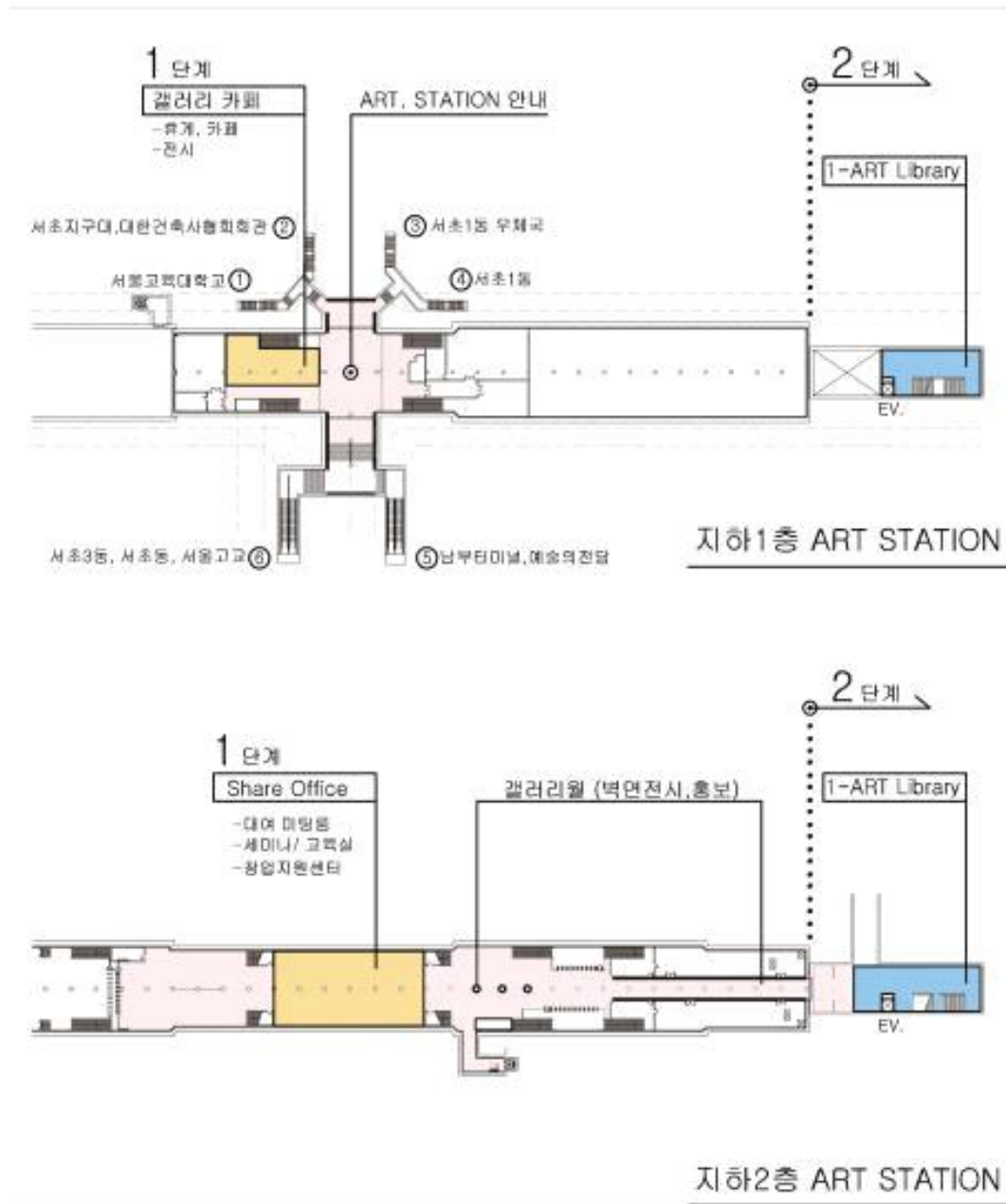
[그림 8] 지하 2층 상가통로 개선 전/후 이미지(대여 미팅룸과 디지털 갤러리)

지역·유동인구 특성 반영한 ‘Art Travel 역사’ 조성 제안

남부터미널역사가 있는 지역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Art Travel 역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지하철역사 진입 홀에는 남부터미널역사의 편의시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스를 설치한다. 갤러리 카페를 신설하는 동시에, 통로공간의 기둥과 벽면을 활용한 전시·홍보 디자인을 기획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하철역사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지하철역사와 진로도매센터 연결통로를 연계하는 3개 층의 수직 동선에는 ‘아트 라이브러리’라는 갤러리를 두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소통과 매개의 공간으로 만든다. 옛 진로도매센터 방향 통로는 길이 100m, 폭 7m 정도의 규모이다. 현재의 통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부터미널 이용자와 연계하여 여행(travel)을 테마로 한 캡슐텔, 여행 정보관 등의 시설을 계획한다. 예술(art)을 테마로 한 악기연습실, 노래연습실, 음악감상실 등의 대여공간과 음악 홍보·전시공간도 함께 계획한다. 옛 진로도매센터 방향 출입구에는 ‘ART BOX’라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소규모 공연, 전시 등의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젊은 예술인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면, 유희공간은 새로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림 9]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Art Travel 역사’ 계획안(지하 1층 상부)



[그림 10]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Art Travel 역사' 계획안(Art Station)

유희공간 활용은 시민의견 중시하고 지속가능성 추구해야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은 계획 단계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겨난 유희공간의 활용은 시민의 요구사항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주변환경은 어떠한지, 주 사용자는 어떤 대상인지,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시설투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춘 유희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3
02 사례조사 및 분석	6
1_관련 정책사례	6
2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유형별 사례	8
3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사례	12
4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현황 및 개선점	17
03 유희공간 활용방안	20
1_설문조사 및 관련 자문	20
2_남부터미널역사 유희공간 활용방안 제안	26
3_향후 과제	36
참고문헌	41

표

[표 2-1] 서울시 지하철 테마역사	13
[표 3-1] 남부터미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21

그림

[그림 2-1] 영등포구청역 - 문 닫은 임대상가	8
[그림 2-2] 오목교역 - 비어있는 임대상가	8
[그림 2-3] 공덕역 - 비어있는 임대상가	9
[그림 2-4] 여의도역 환승공간 - 이용되지 않는 계단 옆 넓은 통로	9
[그림 2-5] 합정역 - 환승을 위한 연결통로	10
[그림 2-6] 강남구청역 - 계단 옆 유휴공간을 카페로 활용	10
[그림 2-7] 이수역 - 비어있는 원형무대	11
[그림 2-8] 매봉역 - 휴게공간	11
[그림 2-9] 교대역 - 휴게공간	12
[그림 2-10] 학여울역 - 휴게공간	12
[그림 2-11] 상월곡역 -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	14
[그림 2-12] 상월곡역 - 플랫폼에 설치된 전시공간	14
[그림 2-13] 상월곡역 - 시민을 위한 건강센터	14
[그림 2-14] 녹사평역 - 작업하는 예술가	15
[그림 2-15] 녹사평역 - 곳곳의 길거리 회화 1	15
[그림 2-16] 녹사평역 - 곳곳의 길거리 회화 2	15
[그림 2-17] 쌍문역 - 출입구 이미지	16
[그림 2-18] 쌍문역 - 휴게공간	16
[그림 2-19] 쌍문역 - 전시공간과 편의시설에 적용된 돌리 이미지	16

[그림 3-1]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주변 현황	26
[그림 3-2]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 현황	27
[그림 3-3] 남부터미널역사 유희공간 활용의 기본 개념	28
[그림 3-4] 남부터미널역 기존 휴게공간	28
[그림 3-5] 휴게카페 + 전시갤러리 개선안	29
[그림 3-6] 휴게카페 + 전시갤러리 제안 이미지 1	29
[그림 3-7] 휴게카페 + 전시갤러리 제안 이미지 2	30
[그림 3-8] 남부터미널역 기존통로 공간의 문 닫은 상가들	30
[그림 3-9] 대여 미팅룸 + 디지털갤러리 개선안	31
[그림 3-10] 대여 미팅룸 + 디지털갤러리 제안 이미지 1	31
[그림 3-11] 통로 공간의 벽면과 기둥을 활용한 디자인 적용 제안	32
[그림 3-12] 유희공간을 활용한 ART TRAVEL 역사 개선안 (지하 2층 ~ 지하 1층)	33
[그림 3-13] 유희공간을 활용한 ART TRAVEL 역사 개선안 (지하 1층 상부 ~ 지상 1층)	34
[그림 3-14] 공공공간과 상업공간이 조화를 이룬 ART TRAVEL 역사 개선안	35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서울의 거주인구는 2018년 9월 기준 9,793,000명¹⁾이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 생활인구²⁾는 여기에 165만 명이 추가된다. 총 1,144만 명이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주택공급을 비롯한 시민 공공이용시설의 확충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도심 내 유휴용지는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하면 찾기 힘든 상황이며, 이에 서울시는 2016년에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재발견이 필요한 공공공간이나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여 새로운 용도를 검토해야 하는 소규모 유휴공간 발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유휴공간 중에서 가장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하철역사의 통로를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사의 개수는 277개 정도이다. 항상 붐비고 사람으로 가득한 지하철역사가 있는 반면,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도 많다. 이러한 곳을 찾아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나 활성화 측면에 유리하다는 이점을 활용

1) 통계청 자료 기준임

2) 서울에서 사실상 생활하는 인구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상주인구)과 일, 교육, 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비상주인구’와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인구’까지, 서울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인구를 포함한다.[출처] 서울시·KT 빅데이터 융합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변 환경과 지하철역 이용자들의 이동 패턴, 필요한 시설 등을 분석하면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연구내용은 우선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이미 수립된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그 유용성과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은 앞으로 제안할 과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지하철역사에 한정하여 유희공간의 재조성 사례를 검토하여 시민 만족도와 공공공간으로의 활용성을 살펴보았다. 이용자는 많는지, 공간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남부터미널역사를 이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알아보고, 관리주체의 의견과 정책의 유무를 조사하여 가능성 있는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실제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행했으며,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 조사, 치수가 포함된 도면 드로잉, 공간 시뮬레이션 등의 수단을 활용해 적용 가능한 대안을 수립했다.

02

사례조사 및 분석

- 1_관련 정책사례
- 2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유형별 사례
- 3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사례
- 4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현황 및 개선점

02 | 사례조사 및 분석

1_관련 정책사례

유희공간 활용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 아이디어·의견을 모으는 정책사업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시민 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

○ 공모내용

-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재발견이 필요한 공공공간이나 기존의 기능을 상실해 새로운 활용방안의 구상이 필요한 서울시내 공공공간을 발굴하고, 공간의 지리/문화/사회적 특성 등을 활용·특화하여 해당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2018. 5. 16(수)~18(금) 09:00~18:00
- 심사결과 발표: 2018. 6월 중순 *개별 통보 및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 사업기간: 2018. 8~11월 중 희망기간
- ※ 상설 시민누리공간(길음): 7~12월

○ 지원자격

-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력이 있는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 시상내역

- 공간별 1백만~1천만 원 내외(*20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내용: 사업 운영관련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소규모 수선비 등

2) 인천광역시: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공모

- 공모내용
 - 민간 및 공공의 문화공간과 유휴공간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18. 2. 26(월) ~ 3. 2(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문화공간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그 공간을 지역과 공유·개방할 의지가 있는 민간단체 및 개인
 - 공기관 유휴공간(지하철역사, 지하보도, 공공청사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민간단체 및 개인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주지 또는 생활권역이 인천광역시인 단체나 개인
- 지원금액: 개소당 2,000만 원 이내(차등지원)
- 지원내용
 -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비

2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유형별 사례

1) 문 닫은 임대상가

서울지하철역사 내 지하상가 중 주변 상권의 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나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문을 닫은 상가는 2017년 기준 15.9%³⁾에 이른다.



[그림 2-1] 영등포구청역 - 문 닫은 임대상가



[그림 2-2] 오목교역 - 비어있는 임대상가

3) 서울교통공사가 김현아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서울시 지하철역사 내 상점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역사 지하상가의 공실률은 15.9%였다. 점포 6개당 1개꼴로 비어있는 셈이다. 공실 상가 점포 수는 2013년 129개에서 2014년 147개, 2015년 310개, 2016년 354개로 계속 증가하다 2017년에는 45개 감소한 309개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309개의 상점을 비워둠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임대료는 188억 원에 이른다. <자료출처: 2017.7 조선비즈>



[그림 2-3] 공덕역 - 비어있는 임대상가

2) 환승역사의 통로공간

많은 지하철역의 환승을 위한 통로와 계단 옆 공간 등도 활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의 유형 중 하나이다.



[그림 2-4] 여의도역 환승공간 - 이용되지 않는 계단 옆 넓은 통로



[그림 2-5] 합정역 - 환승을 위한 연결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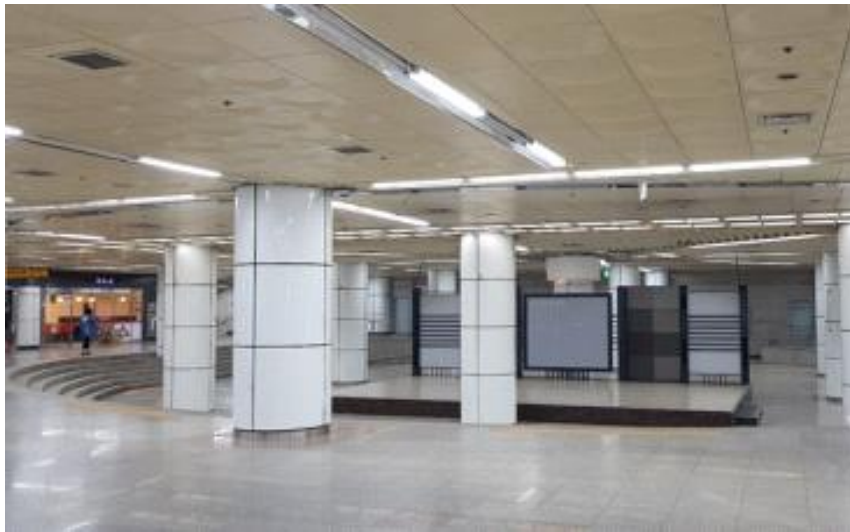


[그림 2-6] 강남구청역 - 계단 옆 유희공간을 카페로 활용

강남구청역은 계단 옆 유희공간을 카페로 계획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개찰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약속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다.

3) 사용하지 않는 편의시설

시민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특색 없는 공간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장소가 된다. 이수역은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4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다. 그러나 이곳 원형무대는 이용동선상에 너무 오픈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림 2-7] 이수역 - 비어있는 원형무대

매봉역, 교대역, 학여울역의 휴게공간은 규모에 비해 가구 배치가 불합리하거나 지하철 이용 동선에서 인지성이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림 2-8] 매봉역 - 휴게공간



[그림 2-9] 교대역 -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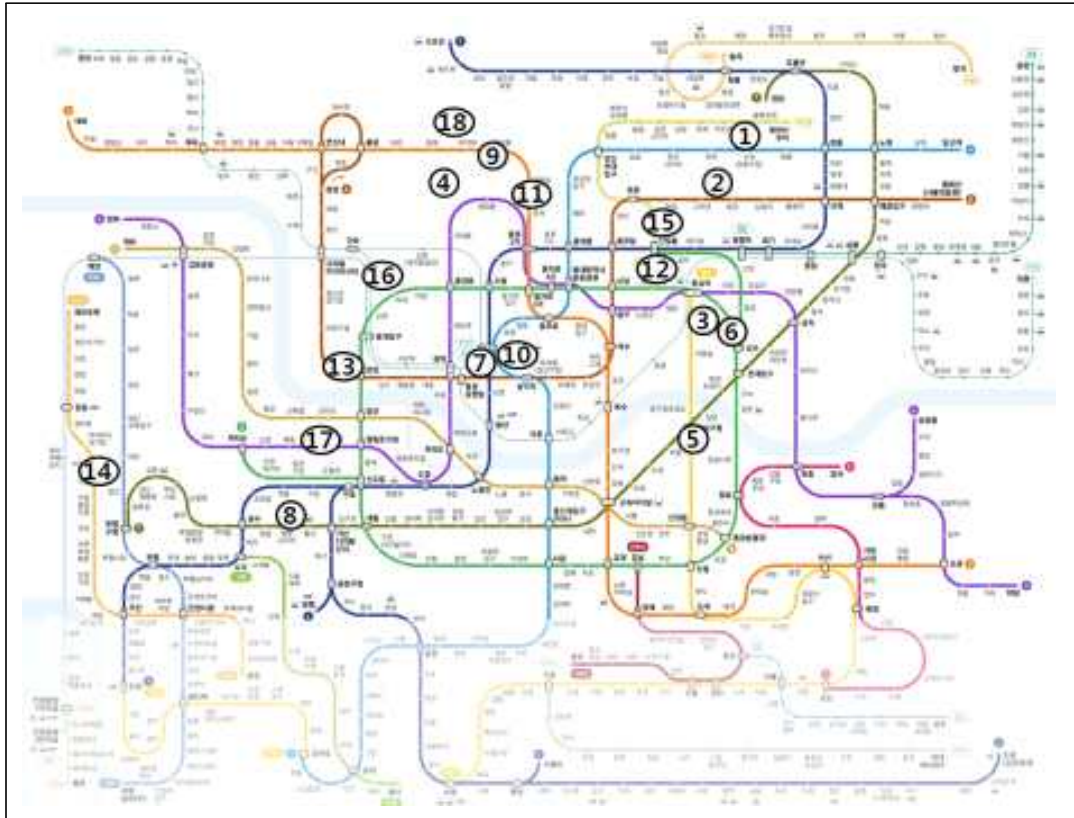


[그림 2-10] 학여울역 - 휴게공간

3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사례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하철역 테마역 조성계획은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의 활용
분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홍보까지를 염두에 둔 계획으로, 현재까지 18개의 역사
에서 진행되었거나 계획 중이다.

[표 2-1] 서울시 지하철 테마역사



번호	지하철역사	테마	번호	지하철역사	테마
1	쌍문역	돌리	10	녹사평역	길거리예술
2	상월곡역	과학	11	혜화역	연극
3	성수역	수제화	12	왕십리역	지하철문화극장
4	광화문역	독서	13	상수역	청춘
5	잠실나루역	자전거	14	삼산체육관역	만화
6	어린이대공원역	어린이	15	제기동역	악령시장
7	삼각지역	대중가요	16	아현역	나비
8	가산디지털단지역	G밸리	17	문래역	목화마을
9	경복궁역	미술관	18	독립문역	태극기

1) 상월곡역_사이언스스테이션

6호선 상월곡역은 과학을 테마로 하여 개찰구 내부 통로공간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였다.



[그림 2-11] 상월곡역 - 유희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



[그림 2-12] 상월곡역 - 플랫폼에 설치된 전시공간



[그림 2-13] 상월곡역 - 시민을 위한 건강센터

2) 녹사평(용산구청)역 길거리예술

6호선 녹사평역은 길거리 예술을 테마로 통로 공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참여형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림 2-14] 녹사평역 - 작업하는 예술가



[그림 2-15] 녹사평역 - 곳곳의 길거리 화화 1



[그림 2-16] 녹사평역 - 곳곳의 길거리 화화 2

3) 쌍문역_둘리

4호선 쌍문역은 만화 주인공 둘리를 주제로 디자인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명소가 됐다.



[그림 2-17] 쌍문역 - 출입구 이미지



[그림 2-18] 쌍문역 - 휴게공간



[그림 2-19] 쌍문역 - 전시공간과 편의시설에 적용된 둘리 이미지

4) 시사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테마역사 조성사업이 이용자 편의를 도외시한 디자인과 콘텐츠 구성으로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한다. 테마역사 조성사업은 지하철역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역사의 유지관리와 보수 등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하철 테마역사 조성사업이 이처럼 이용자들에게 외면받은 것은,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과 의미 없는 콘텐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테마역사 조성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사업의 취지가 지역특색 홍보와 지역활성화”라면서 “지하철 승하차 인원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해 사업평가를 하고, 테마역사의 콘텐츠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테마의 접근 자체를 시민과 공유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4_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현황 및 개선점

첫째, 지하철 유희공간 활용정책 중의 하나인 테마역사는 지역성을 반영한 테마로 꾸민 전시공간, 체험공간, 휴게공간 등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과 지하철역사의 특색을 살려 장소성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며,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적지 않다. 한편에선, 이러한 정책에 앞서 현실적인 지하철역사의 편의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문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셋째,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활용도 높은 공간 구성, 보여주기가 아닌 지하철역사의 이미지 개선 등이 역사 전체 공간의 종합적인 활용 계획과 어우러져 단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03

유희공간 활용방안

- 1_설문조사 및 관련 자문
- 2_남부터미널역사 유희공간 활용방안 제안
- 3_향후 과제

03 | 유휴공간 활용방안

1_설문조사 및 관련 자문

1) 설문조사

- 설문 대상: 총 49명, 남부터미널 역사 내 이용자, 주변 건물 이용자 등
- 설문 기간: 2018.08.15~2018.08.18

“남부터미널 역사의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조사”	
<p>본 설문은 여러분이 남부터미널 역사를 이용하면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000에서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나이 ()	성별 ()
1.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남부터미널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	
<p>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보통이다 ④싫다 ⑤매우 싫다</p>	
2. 여러분은 하루에 남부터미널 역사를 몇 번 정도 이용하시나요? ()	
<p>① 0번 ② 1번 ③ 2번 ④ 3번 ⑤ 5번 이상</p>	
3. 남부터미널 역사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1개만 골라서 ○표 해주세요.	
<p>①출퇴근 ②통학용 ③남부터미널이용 ④특정모임 ⑤기타()</p>	
4. 여러분의 역사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1개만 골라서 ○표 해주세요.	
<p>①사람이 많다 ②휴게공간이 없다 ③무섭다 ④동선이 길다 ⑤기타()</p>	
5. 역사내 유휴공간 중 알고 있는 곳은 무엇인가요. 해당되는 곳 모두 ○표 해주세요.	
<p>①진로도매센터 쪽 통로공간 ②지하1층 휴게공간 ③기타</p>	
6. 다른 역사와 비교해서 남부터미널 역사에 필요한 것을 모두 골라서 ○표 해주세요.	
<p>①휴식공간 ②미팅장소 ③카페 ④도서관 ⑤정보검색공간 ⑥전시공간 ⑦편의점 ⑧음식점 ⑨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p>	
7. 여러분의 가장 인상 깊게 이용했던 지하철역사는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	
8. 위의 인상 깊었던 역사의 어떤 공간이 마음에 들었는지 적어주세요. ()	
9. 남부터미널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	
<p>*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p>	

[표 3-1] 남부터미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단위: 명)

구분	1	2	3	4	5	6	7	8	기타
만족도	매우 좋다(0)	좋다(9)	보통이 다(27)	싫다 (10)	매우 싫다(3)				무응답(1)
이용빈도 (하루)	0번 (9)	1번 (26)	2번 (27)	3번 (1)	4번 이상(0)				2주에 한 번(2) 1주에 두 번(1)
이용목적	출퇴근 (35)	통학 (1)	남부터 미널 이용(4)	특정 모임(4)	기타 (5)				
불편한 점	사람이 많다 (9)	휴게공 간 없다 (7)	무섭다 (2)	동선이 길다 (11)					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하다(7) 편의시설 없다(1), 지저분하다(1), 특색이 없다(1)
유희공간 인식도	진로도 매센터 통로공 간(15)	지하 1층 휴게공 간(22)							모름(12)
유희공간 활용방안 (필요한 공간)	휴게 공간 (21)	미팅 장소 (11)	카페 (16)	도서관 (4)	정보 검색 공간(6)	전시 공간 (9)	편의점 (16)	음식점 (9)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4)
인상 깊은 지하철역사	서울역(4), 경복궁역(4), 합정역(2), 광화문역(3), 고속터미널역(5), 시청역(2),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이하 모두 1), 신목동역, 청담역, 용산역, 교대역, 강남역, 녹사평역, 수서역, 종각역, 오사카역								
인상 깊은 역사의 좋은 공간	쾌적한 시설, 편의시설 구비, 전시공간/휴식공간, 휴게공간, 음식점(먹거리공간), 다양 한 볼거리, 편리한 동선(에스컬레이터 등), 역사(경복궁)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디자인, 서점(종각역), 예쁜 역사 디자인, 개찰구역에서의 안내공간(오사카역)								
남부터미널 역사 이미지	좁고 사람이 많다, 시외버스터미널 연계, 편의시설이 없다, 출퇴근 동선, 낙후/답답/더 럽다, 어둡다, 복잡하다, 계단이 너무 많다(계단 오르기 힘들다), 유동인구가 많다, 오래되어 낡았다, 냄새가 난다, 음침하다								

2) 관련 자문

[자문 1] 서울교통공사 디자인개선추진단 자문의견(2018.07.20 방문회의)

질의 1) 디자인개선추진단은 어떤 조직이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가?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의 TF팀이며, 지하철역사의 공간개선 및 광고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 현재 TF팀은 테마역사 사업보다는 지하철 열차 안을 문화예술철도로 테마화하는 사업, 혁신적인 광고디자인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질의 2) 테마역사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지역성을 가진 지하철역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주도하기보다는 관련기관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협의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 테마역사는 관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 쌍문역은 도봉구청에서 자체 추진하였으며, 상월곡역은 관련 단체 5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운영비 또한 협의체에서 조달한다. 미아사거리역은 전문 큐레이터를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 현재까지 진행된 테마역사의 목적은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인데, 긍정적인 시민 평가가 많지 않고,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질의 3) 지하철 유희공간의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은 어떤지?

-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는 수익사업에 중점을 둔다.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조/환기설비, 피난/안전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설 투자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문 2]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 자문의견(2018.08.30 방문회의)

질의 1) 남부터미널역사에는 지하 1층 휴게공간, 지하 2층의 개찰구와 개찰구 사이의 유휴공간, 옛 진로도매센터 쪽 연결통로(예전의 상가공간)가 있다. 이 공간의 활용계획 등이 있나?

- 진로도매센터 쪽 연결통로에 스마트 팜(수경재배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냉난방, 환기 등의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직 없다.

질의 2) 우리가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남부터미널 이용자, 예술의 전당 이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제안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 이용자가 쉬어갈 수 있는 캡슐텔,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간 등이다. 이러한 공간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다른 적정 공간활용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지?

- 캡슐텔이나 문화/예술공간 등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방식이 좋고, 유해 공간이 아니라면 어떤 공간이라도 검토해 볼 의지가 있다.

질의 3) 지하 1층의 휴게공간, 지하 2층의 개찰구 사이의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어떤 것이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다. 다만 이용자의 동선이나 관리 동선 등에 방해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남부터미널역사 관리주체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문 3] 남부터미널역사 역무실 자문의견(2018.09.07 방문회의)

질의 1) 남부터미널역사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며,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다.
- 전체적인 리모델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편의점,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 음식점이나 상가 등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질의 2)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 등을 활용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나?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 옛 진로도매센터 통로 쪽은 이용자가 많지 않다. 현재는 유지관리나 방범 등의 이유로 밤에는 통로를 폐쇄하고 있다. 이곳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다.
- 지하 1층의 휴게공간이나, 개찰구 사이 공간은 필요한 통로 공간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설문조사와 관련기관 자문의견 종합

(1) 설문조사

① 이용자가 생각하는 남부터미널역사의 이미지

현재 남부터미널역사는 시민 이용자들에게 많이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은 역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 출퇴근 동선이 길고 복잡하다.

- 오래되고 낡았다.
- 어둡다.
- 편의시설이 없다.
- 계단이 너무 많다.

역사 내 모든 편의시설과 상가는 폐쇄되었고 시설들은 낡았다.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② 사용되지 않거나 이용도가 낮은 유휴공간에 관한 시민 의견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은 휴게공간 > 편의점/카페 > 미팅(회의) 장소 > 전시공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③ 인상 깊은 지하철역사 답변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이 인상 깊게 여긴 지하철역사는 고속터미널역 > 서울역 > 경복궁역 > 광화문역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전시공간·카페·서점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공간이 있는 역사였다.

(2) 자문의견

① 서울교통공사의 디자인개선 추진단

테마역사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디자인개선사업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정책 제안과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용자의 의견수렴이나 사후평가 등에 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② 서울교통공사의 부대사업처

남부터미널역사 내 폐쇄된 상가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없다. 설비 등의 시설투자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찾고 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의지가 있다.

③ 남부터미널역사의 역무직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2_남부터미널역사 유희공간 활용방안 제안

남부터미널역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공시설이 인접해 있어 다른 역사에 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하지만, 국제전자센터와 옛 진로도매센터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용하던 통로와 상가는 비워진 지 오래고, 유지관리가 힘들어 시민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변했다. 역사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상권침체로 상가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편의시설이 전무한 지하철역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남부터미널역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남부터미널역사의 유희공간 활용방안과 환경개선 방안을 제안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3-1]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주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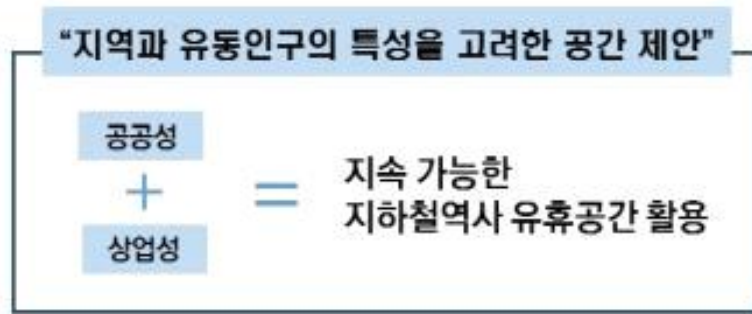


[그림 3-2]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 현황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은 역사 주변 주요 목적지인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한 공간활용성에 주목한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 상가임대 공간과 휴게·대기공간으로 구성된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희공간은 활용도가 낮으며, 특히 상가는 주변상권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모두 폐쇄된 상태이다.

이에 지역의 특성과 유동인구의 요구(needs)를 잘 파악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와 장소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가진 공간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적인 시설을 제안하여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유희공간을 되찾고자 한다.



[그림 3-3] 남부터미널역사 유희공간 활용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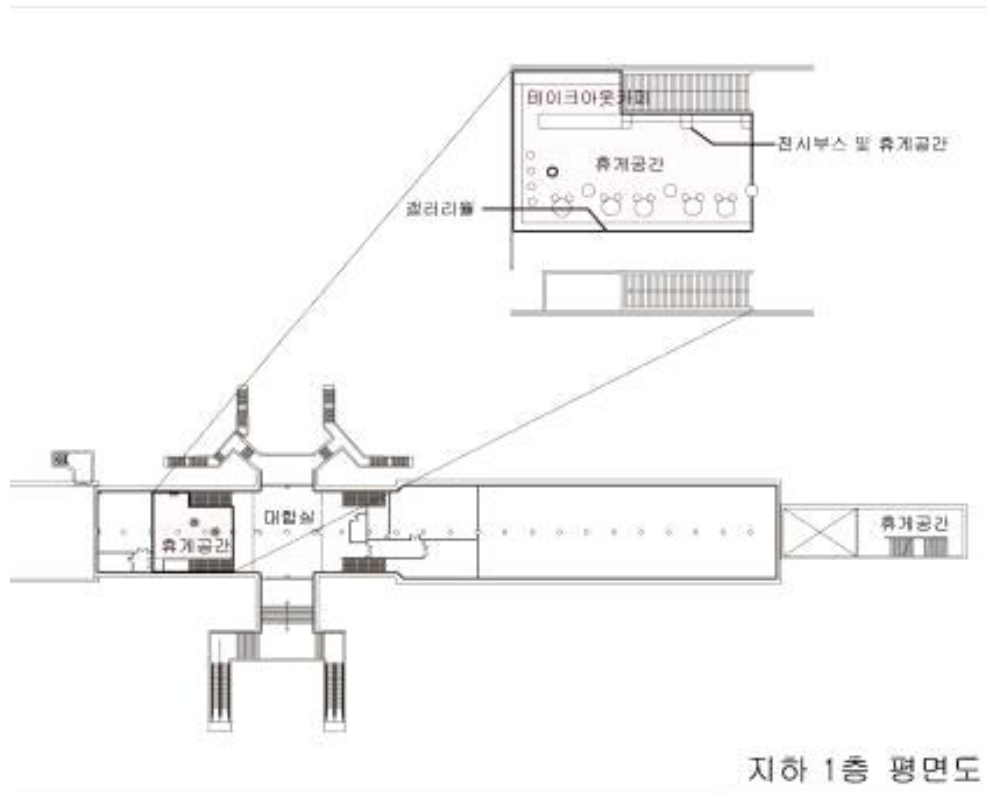
1) 1단계 계획

(1) 지하 1층 휴게홀 개선 제안



[그림 3-4] 남부터미널역 기존 휴게공간

지하 1층 휴게공간은 테이크아웃 카페와 갤러리(전시)의 기능을 더해 볼거리가 있는 디자인된 공간으로 꾸며 휴게기능과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그림 3-5] 휴게카페 + 전시갤러리 개선안



[그림 3-6] 휴게카페 + 전시갤러리 제안 이미지 1



[그림 3-7] 휴게카페 + 전시갤러리 제안 이미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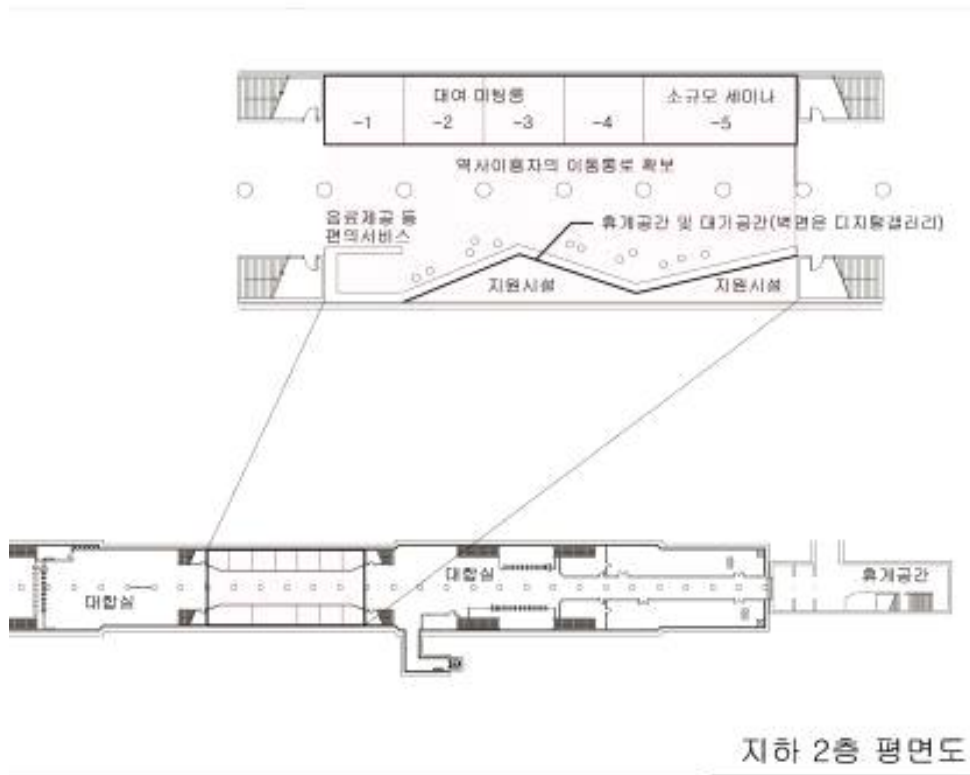
3호선 상징 컬러를 벽면과 천정에 적용하고, 바닥은 편안한 데크재질로 꾸몄다. 휴게공간(카페)에는 벽면과 투명유리 박스를 활용한 조각물 전시공간을 더했다.

(2) 지하 2층 대합실 사이 통로공간의 활용방안

지하 2층 대합실 사이 통로공간은 기존 통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임대형 미팅룸과 디지털갤러리를 겸한 오픈형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3-8] 남부터미널역 기존통로 공간의 문 닫은 상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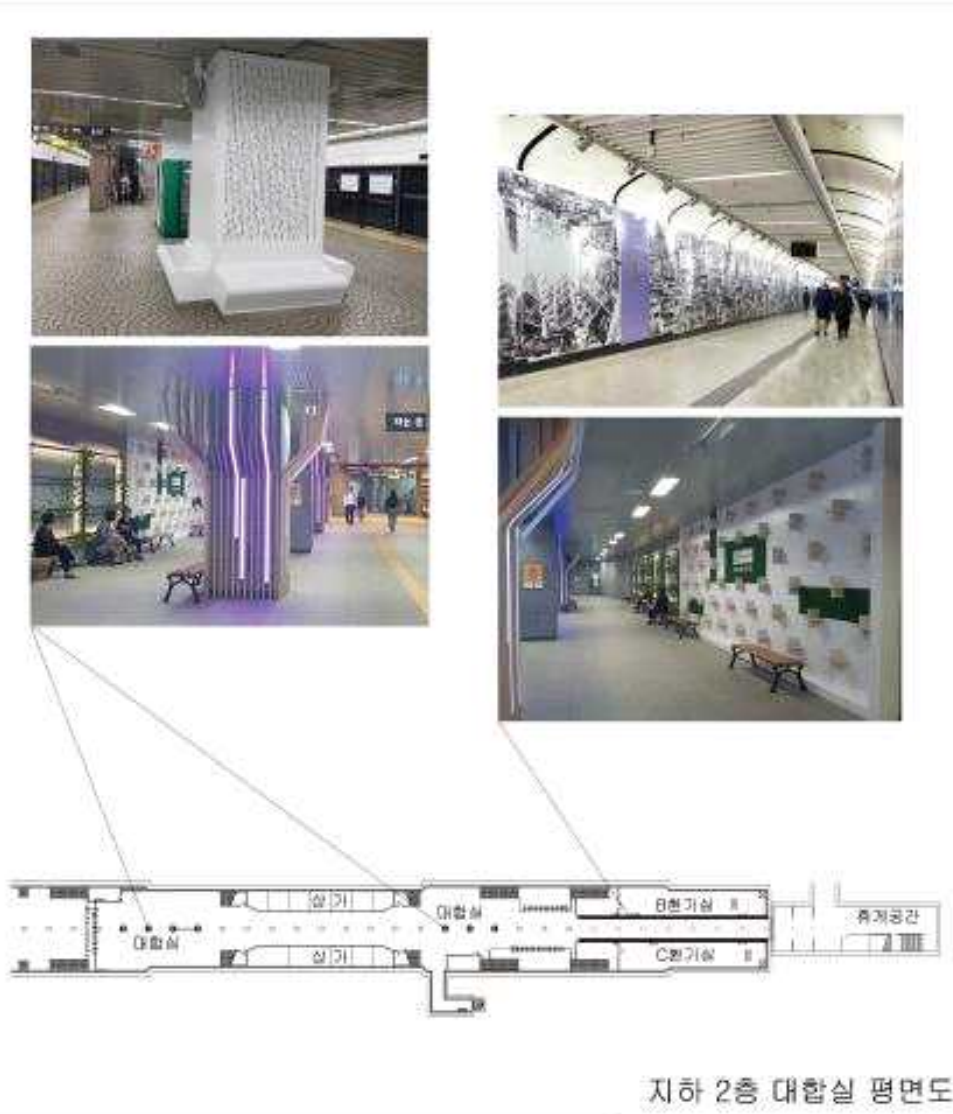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그림 3-9] 대여 미팅룸 + 디지털갤러리 개선안



[그림 3-10] 대여 미팅룸 + 디지털갤러리 제안 이미지 1

(3) 지하 2층 통로 벽면과 기둥을 활용한 휴게시설, 갤러리 등의 공간활용 및 디자인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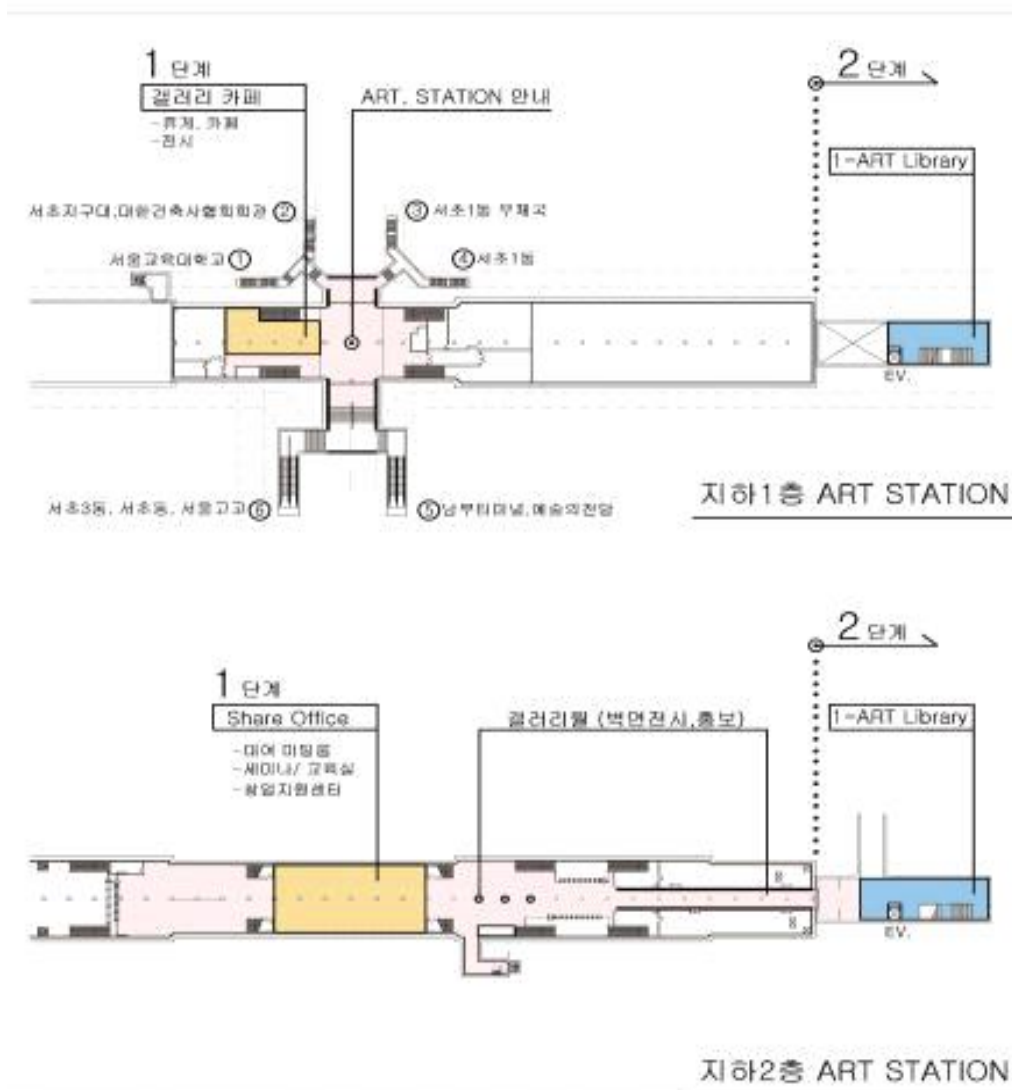


[그림 3-11] 통로 공간의 벽면과 기둥을 활용한 디자인 적용 제안

2) 2단계

(1) Art + Travel을 접목한 테마가 있는 역사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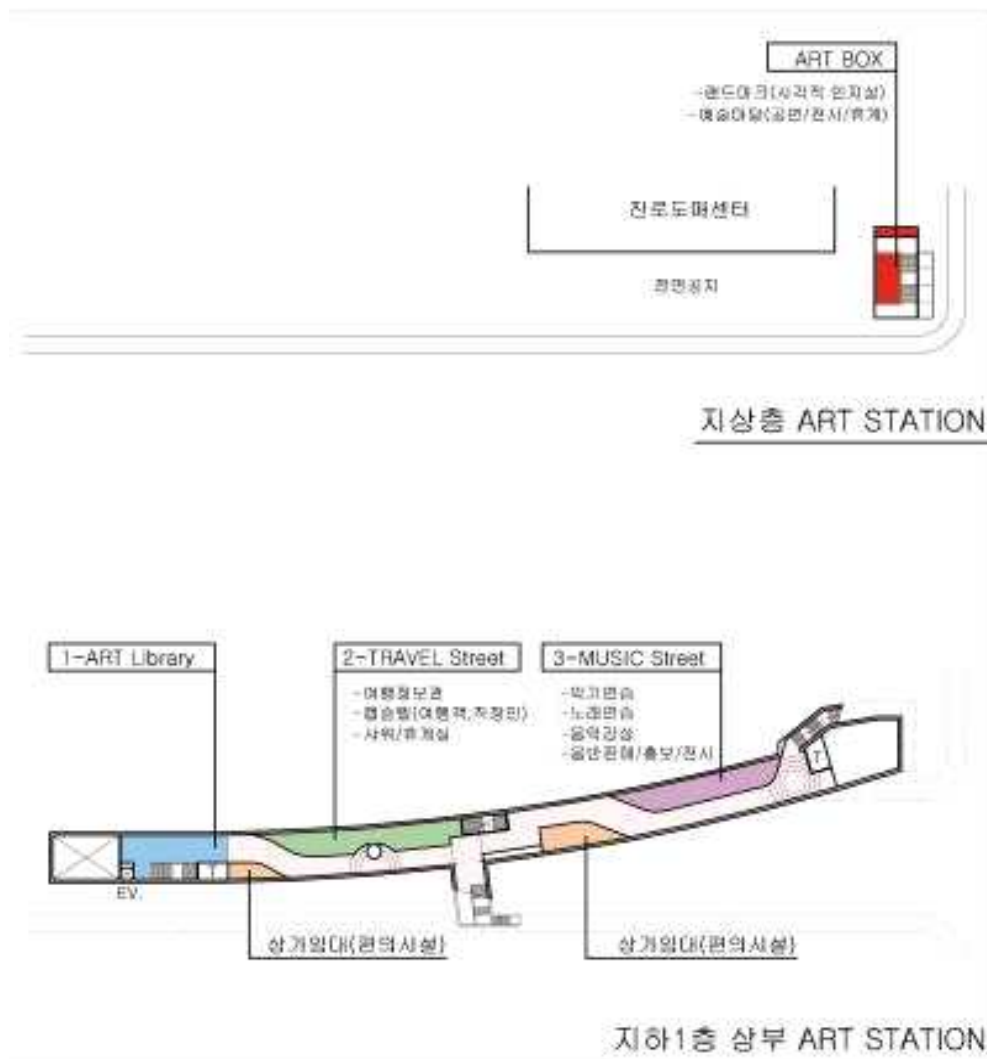
우선 지하철역사 진입홀에는 ART 스테이션을 홍보하고 안내 부스를 설치한다. 갤러리 카페를 신설하는 동시에, 통로공간의 기둥과 벽면을 활용한 전시·홍보 디자인을 기획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하철역사의 이미지를 개선한다. 지하철역사와 옛 진로도매센터 연결통로를 연계하는 3개 층의 수직 동선에는 ‘아트 라이브러리’라는 갤러리를 두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소통과 매개의 공간으로 만든다.



[그림 3-12] 유휴공간을 활용한 ART TRAVEL 역사 개선안(지하 2층 ~ 지하 1층)

(2) 옛 진로도매센터 방향 통로는 여행과 예술을 테마로 한 공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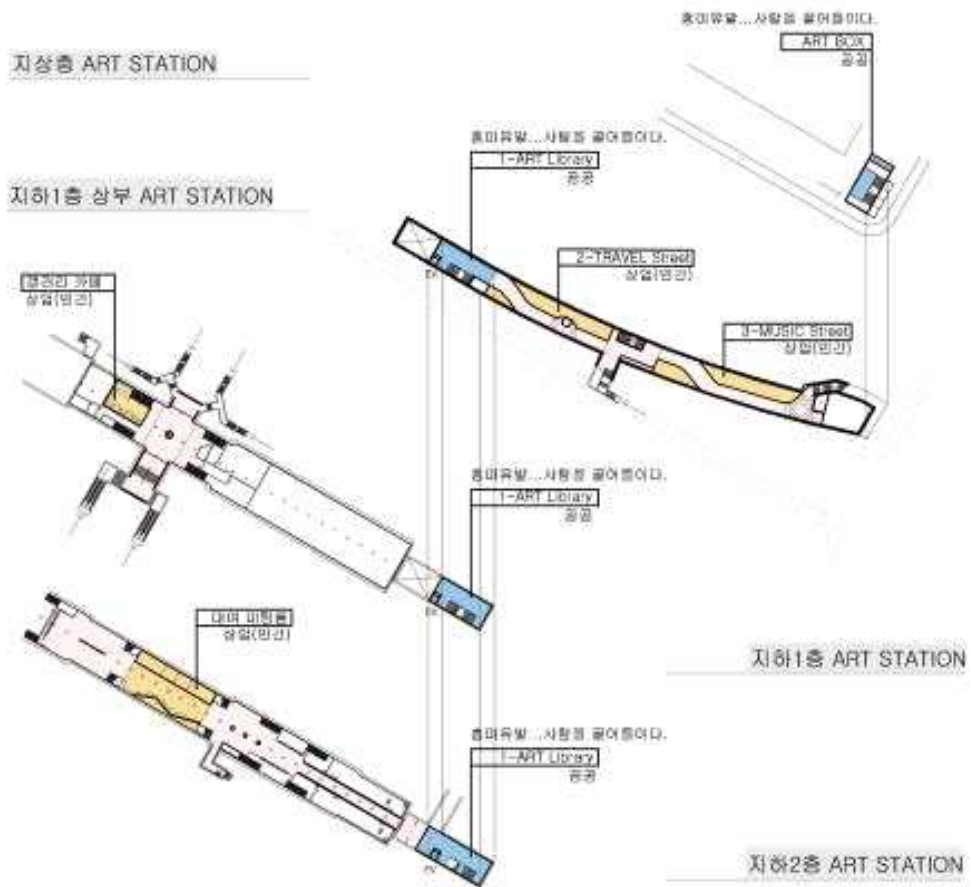
옛 진로도매센터 방향 통로는 길이 100m, 폭 7m 정도의 규모이다. 현재의 통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남부터미널 이용자와 연계하여 여행(travel)을 테마로 한 캡슐텔, 여행 정보관 등의 시설을 계획한다. 예술(art)을 테마로 한 악기연습실, 노래연습실, 음악감상실 등의 대여공간과 음악 홍보·전시공간도 함께 계획한다. 옛 진로도매센터 방향 출입구에는 ‘ART BOX’라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소규모 공연, 전시 등의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젊은 예술인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면, 유휴공간은 새로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림 3-13] 유휴공간을 활용한 ART TRAVEL 역사 개선안(지하 1층 상부 ~ 지상 1층)

3) 공공공간과 상업공간이 조화된 장소성 부여

‘Art Travel 역사’ 개선안은 지역과 유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역사를 지향한다. 또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공성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성을 동시에 지닌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그림 3-14] 공공공간과 상업공간이 조화를 이룬 ART TRAVEL 역사 개선안

3_ 향후 과제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생겨날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1)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의 발생 억제

신설되는 역사는 사업 초기부터 향후 발생할 문제들을 심층분석하고,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와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으로 구성해 유희공간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미 발생한 유희공간은 장소·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활용

이미 만들어진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은 다음과 같이 주변 환경, 이용자, 공간의 특성은 물론 필요한 시설까지 검토한 후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고려
 - 주변 건물의 주된 용도와 상권에 대한 분석과 고려
- 나. 누가 이용할 것인가?
 - 주된 이용자 연령대와 성별은 어떠한지?
 -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 다.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 SOHO 사무실이나 작은 상점들로 구획할 것인지?
 - 대공간의 사무실이나 커다란 오픈플랜의 다용도 공간으로 구성할 것인지?

- 라. 공간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접근성 고려는?
 - 외부에서 잘 인지되는 개방된 공간 구조로 만들 것인지?
 - 다른 공간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 구조로 만들 것인지?
- 마. 이용자의 통행량에 영향을 받는 공간인지?
 - 이용자의 통행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인지, 민감한 공간인지?
 - 어느 정도 통행량이 필요한 공간인지?
- 바. 시설투자는 누가 할 것인지?
 - 기반시설은 지하철공사가 지원해야 하는지?
 - 내부시설은 사용자가 투자하고 자유롭게 구성하는지?
 - 관리 주체가 지원해주고 일관성 있는 공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인지?
- 사. 어떠한 지원시설이 필요한지?
 - 냉난방설비가 필요한지?
 - 환기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이동장치가 필요한지?
 - 급수전, 화장실 급·배수설비가 추가로 필요한지?

3) 관리 주체의 사업 의지와 정책 방향이 중요

(1) 지하철역사 권리를 가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의지가 중요

수많은 지하철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여건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주민공감이나 설문조사 등 이용자(시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유휴공간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

에게는 적정 임대료 책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 홍보방안과 관리지침을 사업시행자의 편에 서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유희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나 단체의 활용 의지가 필수 지하철역사 내 유희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개발해 이용자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

4) 정책 제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하철역사와 역사 내 유희공간을 활용해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정책 방향

무엇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아이템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단계별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계획의 방향을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완성해 나가야 한다.

(2) 시행 전략

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정책은 서울시에서 총괄하되, 세부적인 것은 각 구청에 위임하여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서울시·구청별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 개선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편의시설 제공으로 유희공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업은 철저하게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시민참여형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기대 효과

서울시 지하철역사는 지역 곳곳에 균형 있게 자리하고 있으며,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편의·공공시설의 확충은 앞으로의 복지정책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 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할 때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경제성과 접근 용이성 등의 장점을 살린 효율적인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디나 비슷하고 특색 없는 지하철역사에 장소성을 부여해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소통하는 문화·공공공간이 곳곳에 스며 들어 자리를 잡으면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우, 2011, 「서울시 지하철역사 유희공간의 공간 특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강사신문(2018.05.03.), “서울시, '공공 유희공간, 시민 아이디어로 살린다' 공모전 개최”,
(http://m.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68#_enliple)

폴리뉴스(2018.04.05.),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라플리에 현장 탐방”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51770>)

해럴드경제(2018.05.23.), “온해파-인천교통공사, ‘나눔과 공존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23000864>)

아시아경제(2018.02.04.), ““도심 속 유희공간을 문화시설로”...인천시 ‘1천개 오아시스’ 본격화”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0414581191018>)

news1(2018.08.29.), “6호선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변신...공공미술 명소로”
(<http://m.news1.kr/articles/?3411274#imadnews>)

MBC(2016.12.18.), “[집중취재] 우후죽순 테마역사, 시민 안전·편의는 뒷전?”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86151_19842.html)

전기신문(2017.06.09.), “주객전도된 서울 지하철 테마역사...시민들 ‘외면’”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496882183145269013>)

서울교통공사 테마역사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ldx=413&bbsidx=2205446>)

서울교통공사 Webzine

(<http://webzine.smrt.co.kr/enewspaper/articleview.php?aid=1627>)

슬림화된 지하상가와 지하철역 유휴공간 이렇게 활용하면..._

(<https://blog.naver.com/jumpo119/220310332526>)

출퇴근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천 지하철역 도서관

(<https://blog.naver.com/bucheon-city/221264563421>)

은평마을속학교로 놀러오세요

(<http://imnews546.tistory.com/1362>)

지하철 테마역사로 떠나는 여행, 함께 가실래요?

(<https://m.blog.naver.com/mltmkr/221002647707>)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가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0887315778>)

작은연구 좋은서울 18-08

지하철역사 유희공간 활용방안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10월 2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